

이번 발표에서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는 ‘번역’이므로, 이 말에 대해 먼저 생각하며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다. 잘 알려져 있듯 영어 ‘translate’에는 ‘어떤 사람, 장소, 상황으로부터 다른 사람, 장소, 상황으로 옮기다. 이동시킨다’는 의미가 있다. 이동으로서의 번역 행위에는 타자와의 마주침이 늘 수반된다. 이에 주목한 페미니즘 연구자 다케무라 가즈코(竹村和子)는 텍스트가 이동할 때 발생하는 “억압적, 영유적 혹은 생산적인 잘못 옮겨짐(즉 오역)”이 번역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번역은 두 견고한 언어 사이 기호 표현들의 교환이 아니다. 근대 번역의 역사가 곧 식민주주의의 역사이기도 했음을 생각하면, 가령 억압된 언어가 언어라는 사실조차 망각될 정도로 다른 언어가 지배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지배적인 언어가 ‘기반’이 되어 기호 표현과 기호 내용이 정확하게 연속되지 않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¹⁾

여기서 번역이란 단순히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한다는 의미에서의 ‘번역’이 아니다. 즉, 하나의 텍스트에서 다른 텍스트로 옮기는 것(번역)이란 각 언어가 통일체임을 미리 전제하지 않는다. 일본사상 연구자인 사카이 나오키(酒井直樹)에 의하면 번역 행위는 언어를 분절화하고 ‘번역’ 그 자체를 표상함으로써 마치 “번역하는 언어와 번역되는 언어의 자립적이고 폐쇄된 통일체가 존재”하는 것처럼 두 언어를 상상하게 한다.²⁾ 그리고 이러한 구조를 통해 제도로서의 국민국가의 언어(예를 들어 일본어)가 성립했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번역 행위가 투명하고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번역은 서로 다른 공동체 사이에 교량을 놓는 행위라기보다 오히려 ‘잡종화’이다. 그리고 그것이 독자들 안의 잡종의 언어와 뒤섞여 새로운 공생을 만들어낸다. 메리 R. 플랫은 식민지와 피식민자가 어떤 비대칭적인 힘을 수반하면서 만나고 접촉하고 상호 시선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서로의 관계가 변화하고 글쓰기에도 역사적인 이행(historical transitions)이 발생한다고 했다. 이러한 역사적 이행이 발생하는 공간은 ‘콘택트존’이다.³⁾ 잡종화가 현재진행형으로 실천되는 공간으로서 콘택트존을 생각한다면, 일본어 공간에서 새로운 시민권을 얻고 있는 듯 보이는 ‘한국-문학’에는 어떤 역사적 이행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중국철학 연구자 나카지마 다카히로(中島隆博)는 철학자 엠마누엘 레비나스가 말하는 ‘타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예컨대 자국어라고 해도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풀어낸다는 의미에서의 ‘번역’이 아무래도 ‘필요하다’는 것이다.⁴⁾ 철학자 발터 벤야민은 “번역은 원작 이후에 오는 것이며, 그 작품의 ‘죽음 이후의 삶’의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⁵⁾ 즉 ‘번역’이란 언어에 새겨진 기억-역사와

1) 竹村和子, 「翻訳の誠治——誰に出会うのか」(『境界を攪乱する——性・生・暴力』, 岩波書店, 2013), 「第五章〈普遍〉ではなく〈正義〉を——翻訳の残余が求めるもの」(『愛について——アイデンティティと欲望の政治学』, 岩波書店, 2002) 참조.
2) 酒井直樹, 『日本思想という問題 翻訳と主体』, 岩波書店, 1997.
3) Pratt, Mary Louise, *Imperial Eyes: Travel Writing and Transculturation*, Routledge, 1992.
4) 中島隆博, 『ヒューマニティーズ 哲学』, 岩波書店, 2009.
5) ヴァルター・ベンヤミン, 「翻訳者の使命」, 『ベンヤミン・コレクション 2 エッセイの思想』, 浅井健二郎編訳, 筑摩学術文庫, 1996.

마주하는 일이며, 언어에 어떤 문화정치의 역학이 놓여 있는지 드러내는 행위이기도 하다.

여러 지역, 그리고 다양한 언어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처럼 보이는 ‘K’가 붙는 여러 콘텐츠의 인기로부터 무엇을 읽어내야 할까. 여기에 성급하게 ‘세계’라는 말을 연결시키는 것을 잠시 유보하고 일본어 공간에서 작동하는 문화정치의 역학과 거기에서 드러난 민낯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고 싶다.

1. ‘K문학’으로의 여행은 ‘광주’에서 시작했다

올해 여름, 이 분홍색 표지의 책(PPT)이 화제가 되었다. 이 책은 사이토 마리코(齊藤真理子)의 『한국문학의 중심에 있는 것(韓国文学の中心にあるもの)』이다. 7월 간행된 이래로 내내 만화 등 인기 콘텐츠를 모두 포함하여 아마존 전체 순위 2천~3천위를 오르내리고 있다. 올해 4월에 간행된 히가시노 게이고(東野圭吾)의 『가면무도회 게임(マスカレード・ゲーム)』(2921위)과 거의 같은 위치다. 2022년 9월 7일 현재 한국 관련 서적과 비교하자면, 50만 부 이상 간행되었고 지금도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김수현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私は私のままで生きることにした)』가 1638위, 『82년생, 김지영』(이하 ‘김지영’으로 줄임)이 4993위, 그리고 2020년 서점 대상 번역소설 부문상을 수상한 손원평의 『아몬드』가 6330위다. 2022년 5월 간행 이후, 페미니즘 관련 서적으로서는 이례적 판매고를 보여주는 시미즈 아키코(清水晶子)의 『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요(フェミニズムってなんですか?)』(文春新書)가 1552위인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선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자인 사이토 마리코는 K문학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는 이름이다. 조남주 『82년생, 김지영』의 번역자인 그녀는, 한국문학을 페미니즘에 접합시키는 방식으로 가시화한 잡지 『문예(文藝)』특집을 꾸린 장본인이기도 하다. 한국의 현대문학을 열정적으로 번역·소개하던 그녀는 『문예』 특집의 ‘증보 결정판!!’을 토대로 한 단행본 『한국·페미니즘·일본(韓国・フェミニズム・日本)』(河出書房新社, 2019년)을 기획해서 주목받았고 ‘한국=K문학’에 대한 인터뷰, 좌담회, 에세이 등을 통해서도 대활약 중이다.

일본어 공간에서 ‘K문학’의 거센 확산의 중심에는 ‘K’가 붙는 다른 문화 콘텐츠 스타들의 발언뿐 아니라 사이토 마리코가 있는 것이다. 사이토는 ‘82년생, 김지영’을 이야기할 때 아주 당연한 양 조세희의 『난쏘공』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하 『난쏘공』으로 줄임)을 언급한다. 『한국·페미니즘·일본』의 권두언 ‘미래로부터 보인다’는 『김지영』에서 시작하여 현재 한국문학 여성작가의 활약을 소개했고, 끝부분은 『김지영』과 거의 같은 분량으로 『난쏘공』과 작가 조세희에 대한 소개로 마무리되었다.

그녀는, 조세희와 『난쏘공』에 대해 “한국에서 1978년에 출판된 이후 130만 부가 팔렸고 지금도 스테디셀러이며, 경제성장의 그늘에서 떠밀리고 사라져버린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다성적으로 그린 연작 단편집”이라고 소개한다. 그리고 “김지영의 어머니 오미숙의 젊은 시절 이야기”라고 말하며 『김지영』과 연관짓는 것도 잊지 않는다.

사이토는 메이지대학교 2학년이었던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보도에 충격을 받았고 그것을 계기로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다고 한다.⁶⁾ 메이지대학의 한국어 서클에서 한국어 공부를 했고 그다음 해(1981년)에는 『난쏘공』을 읽었다. 일본어로 읽었는지 한국어로 읽었

6) 일본의 80년대를 대표하는 아이돌 출신이자 이후 배우, 에세이스트로도 유명한 고이즈미 교코(小泉今日子)의 Spotify 오리지널 팟캐스트 프로그램 『本日のユイジさん』에 출연했을 때(전편) 말한 것이다. 2022년 3월 14일(#49전편)과 3월 21일(#50후편) 두 차례에 걸쳐 방송되었다. <https://hontonokoizumisn.303books.jp/ep/49#content>

는지는 확실치 않다. 1980년 초에 ‘무궁화회(むくげ会)’의 번역으로 『조세희 소품집』(무궁화회)이 간행된 것을 생각하면, 일본어 번역으로 읽었을 가능성도 있다. 어느 쪽이든 그녀에게 이 독서 경험이 뿌리 깊이 남았고 그로부터 35년 후인 2016년에 가와데쇼보신샤(河出書房新社)에서 직접 번역을 내게 된 것이다.

사이토는 『난쏘공』에서 조세희의 『시간여행』(1983년) 쪽으로 이야기를 이어간다. 이 작품은 일본어로 번역 소개되지 않았다. 그래서 사이토는 한국 독자와 거의 시차 없이 같은 언어(한국어)로 이 작품을 읽었다. 당시 일본에서 한국이나 한국어가 어떤 문화의 주변에 있었는지를 생각한다면, 당시 스무살 사이토의 독서 경험이란 꽤 흥미로운 사례다. 김원은 미국이나 유럽 상황을 참조하면서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은 ‘전국화’되기에 앞서서 ‘국제화’되었다”고 말하고, 그 과정에서 일본은 “5·18에 관한 자료들이 미국, 유럽 등에 확산되는 경유지”였다는 점에 주목한다. 한국에서/으로의 정보는 일본 국내외로 확산될 때 한반도의 냉전 구도와 연동했다. 따라서 복잡하게 분단된 자이니치 사회에서도 5·18은, ‘광주세대’라는 말이 만들어질 정도로 큰 변화를 초래했다. “5·18의 집단 기억은 ‘공화국’이 아닌 또 하나의 조국으로서 ‘남한’을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김원은 파악한다. 그리고 ‘광주세대’라는 말은, ‘자이니치’를 ‘광주’의 대변자로 위치시키고 ‘재일조선인’을 ‘광주시민군’으로 일체화시키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고 그는 지적한다.⁷⁾

‘광주’는 자이니치 사회뿐 아니라 일본 사회에서 ‘한국’을 파악하는 관점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미숙은 “전후 일본 사회에서 한국은 특별한 주목 대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무관심, 또는 멸시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1970년대 들어 일본의 학생운동이 ‘산리즈카(三里塚)’ ‘사야마(狭山)’ ‘한일연대(日韓連帯)’라는 3개의 키워드로 이야기될 만큼 한국이 주목받았다.”⁸⁾고 지적했다. 1970년대 ‘한일연대운동’의 선두에는 오다 마코토(小田実) 등 ‘베트남에 평화를! 시민연합’(이하, 베헤렌으로 줄임)의 멤버들이 있었다. 쓰루미 슌스케(鶴見俊輔), 오다 마코토 등은 1972년 5월 9일 ‘김지하 구조 위원회’⁹⁾를 조직하여 적극적인 구조 활동에 나선다.

1960년대 베트남 반전운동이 활발했던 시기에 비춰보면 커다란 변화가 생긴 것이 분명하다. 오다 마코토를 비롯해 초기 베헤렌 멤버는 베트남 반전운동에 ‘오키나와 문제’나 ‘한일 국교회복’ 문제 등의 ‘색깔이 덧입혀지는’ 것을 경계했다. 이런 태도는 당시 ‘보통 시민’(베헤렌이 즐겨 사용한 말 : 메이저리티(일본인)를 가리킨다)의 관심 여부를 강하게 의식했기 때문이었다. ‘오키나와 문제’ ‘한일 문제’는 언제나 늘 모이는 사람만 모이는 ‘자기들만’의 세계이며 ‘보통 시민’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는 세계다. 비슷한 논리는 ‘한일조약’ 관련 좌담회에서도 엿볼 수 있다. 시즈노 세이사부로(静野精三郎)·하야시 겐히코(林健彦)·나카시마 류키(中嶋竜美)·후지시마 우치(藤島宇内)의 「한일조약 1년의 현실(日韓条約一年目の現実)」(『現代の眼』1966년 12월호)에서 오키나와 문제, 한일 문제, 피차별 부락 문제에 관한 르뽀 등을 다루던 후지시마 우치조차도 “만일 제가 한일조약 반대까지 외쳐보십시오. 저를 따르는 많은 분들 놀라서 도망가버려요. 운동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저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한일 문제를 건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라며 대중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한일 문제’는

7) 김원, 「자이니치(在日)와 5.18 : 5.18에 대한 자이니치 사회의 반향과 대응」, 한국학중앙연구원, 『트랜스내셔널 5.18 : 해외의 인식과 국내 담론의 비교』, 2019, 120쪽.
 8) 李美淑, 『「日韓連帯運動」の時代-1970-80年代のトランスナショナル公共圏とメディア-』, 東京大学出版会, 2018, 78쪽.
 9) ‘김지하 구명위원회’는 1973년에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일본지부 안에 제6그룹 ‘가교(架橋)’가 결성된 것을 계기로 해산했고, ‘가교’로 합류했다.(『市民運動』, 1973년 10월 1일)

베트남 반전운동의 장애물이라고 분명히 말한 것이다.¹⁰⁾

김지하와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구명 활동에는 대중적 관심이 별로 모이지 않았다. '한일연대'라는 조어가 만들어지고 '한국 군사정권의 실체와 한국 민주화 운동을 일본 대중이 처음 인식하는 계기가 된' 것은 1973년 8월 8일의 김대중 납치사건이다.¹¹⁾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정치범 구명 운동 네트워크의 고리가 확장되었고, 1976년 8월 8일에는 '다시 김대중 씨 사건을 고발하는 8·8 집회'가, 그리고 같은 해 8월 12일부터 14일에는 한민통¹²⁾과 오다 마코토 등의 '한국문제 긴급국제회의'가 개최된다. 이어 같은 해 12월 23일에는 '백만인 서명을 초과 달성했고, 3·1 민주 구국 선언을 지지하며 모든 정치범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한일 대집회'가 열린다.

이런 운동은 1980년 5월 18일 광주 항쟁이 일어난 이후인 5월 21일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의해 김대중 등 한국 민주화 운동 지도자들이 군법회의에 회부되며 본격화한다.¹³⁾ 사이토 마리코가 『난쏘공』을 처음 읽은 시기에 이 작품을 번역한 '무궁화회'도 원래는 베헤렌의 차별 억압 연구회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1971년 '일본인 입장에서 조선을 배우고자 발족'¹⁴⁾한 사회운동의 자장에 있었던 것이다.¹⁵⁾ 사이토 마리코 본인은 별로 언급하지 않지만 사이토는 일본 경제가 버블의 절정(88년 전후)을 향해 우상향하던 시기에 가혹한 독재 치하의 '한국'을 돕는 운동이 확산된 바로 그 현장 주위에서, 한국 '문학'으로의 여행을 시작한 것이다. 즉 당시 20세였던 사이토 마리코는 자이니치가 말하는 '광주 세대'와는 다른 의미, 주류 사회에서 태어난 '광주 세대'였던 셈이다.

2. 증식하는 '나'들과 '김지영'들

'광주세대' 사이토 마리코의 존재감을 부각시킨 잡지 『문예』 특집호 '한국·페미니즘·일본'은, 사이토 본인과 '초(超)'라는 접두어가 붙을 만큼 유명하고 인기있는 영어권 문학 번역자 고노스 유키코(鴻巣友季子)의 대담으로 시작된다(PPT). 여느 때의 고노스라면 '세계' 문학에 대해 말하는 포지션이고, 그녀의 상대는 대개 '일본학'이나 '일본문학' 관련 유명인이었다. 하지만 이 대담에서 고노스는 과할 정도로 '일본' '일본문학' 쪽 입장을 취했고, 사이토는 그에 대응하는 식으로 '한국'을 이야기하는 모습이었다. 즉, 기존의 고노스 역할에 익숙한 이들에게는 이 대담의 모양새 자체가 이미 어떤 장치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두 사람은 번역을 본업으로 하는 사람들답게 대담 역시 한국문학이 유행하는 이유

10)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영란, 「'원폭'을 둘러싼 상상력의 구조 - 베트남 전쟁과 '아시아' 언설을 실마리로(「原爆」をめぐる想像力の枠組み—ベトナム戦争と「アジア」言説を手がかりに)」 『原爆文学研究』14호, 2015년 12월에서 상세히 논했다.

11) 이미숙, 앞의 책, 104쪽.

12) 김대중은 해외활동가들과 네트워크 형성을 목적으로 우선 1973년 7월 6일 미국에서 '한국 민주회복 통일 촉진국민회의'(본문에서는 한민통이라고 표기) 본부를 결성했다. 그 후 7월 10일에 일본에 갔고 일본의 한민통 결성을 위해 움직이던 중에 한국 정부에 의해 납치되었다. 일본에서는 납치사건 5일 후인 8월 13일에 '한국 민주회복 통일 촉진 국민회의 일본본부 발기대회'가 열렸고 김대중을 의장으로 하는 한민통 일본본부가 결성되었다.

13) 와다 하루키(和田春樹)의 「김대중 씨를 죽이지 마라, 1980년 겨울(金大中氏を殺すな・一九八〇年冬)」에서는 1980년 12월을 김대중 구조 활동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파악한다.(『三千里』, 三千里社, 1981년 봄호)

14) 「むくげ通信200号」, 『神戸新聞』, 2003년 10월 1일.

15) 광주민주화운동을 계기로 하는 한국민주화지원과 일본의 문화운동에 대해서는 「문학자의 반핵성명과 한국민주화지원의 시대-HIROSHIMA·냉전·광주(文学者の反核声明と韓国民主化支援の時代—HIROSHIMA·冷戦·光州)」(坪井秀人編, 『対抗文化史 冷戦期日本の表現と運動』, 大阪大学出版会, 2021)에서 논했다.

를 번역 문제에서 찾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고노스 : (김지영이 팔리는 이유) 한국에서도 수수께끼로군요. 이것이 일본에서 팔린 것도 역시 일단은 번역 작품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인공 김지영과 같은 세대의 일본인이 '이건 내 이야기'라고 직접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번역이라는 언어조작이 한 단계 개입한 탓 아니었을까요.

사이토 : 그렇습니다. '김지영'이어서 읽힌 거지 '사토 유미코(佐藤由美子)'여서는 안되었던 거죠.

코스미 : 네? 사토 유미코?

사이토 : 1982년에 일본에서 태어난 여자아이 이름 중에 가장 많은 이름이 유미코라고 츠쿠마 쇼보에서 전해 들었습니다. 가장 많은 성이 사토니까, 김지영의 일본판은 사토 유미코인 거죠. (중략) 번역이란 약간은 판타지 섞인 감각인 겁니다.

한국에서도 자주 다루어진 이야기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김지영'과 같은 세대의 일본어 독자가 '김지영'은 '내 이야기'라고 '나'라는 1인칭 주어를 통해 '나'의 이야기를 이어간다는 것이다. 고노스와 사이토는 그것을 (두 사람이 말하는 번역은, 한국어에서 일본어로의 번역) '번역'이 개입하면서 생기는 적당한 '거리'가 낳은 상승효과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독자의 '내 이야기'화야말로, 본 발표의 도입부에서 말한 언어 내의 자기 '번역' 행위인 셈이다.

사이토는 '김지영' 독자에게 트위터에서 '#82년생 김지영과 나의 꿈'이라는 해시태그를 단 꿈들을 두고 받았다고 한다. 사이토는 그 대표격으로 다음 트윗을 보여준다.¹⁶⁾ 여기에서 부상하는 것은 '김지영'이 일본어 공간, 특히 메이저리티 일본어에 내재된 '남자'와 '여자'를 축으로 하는 이항대립적 구도를 안정적으로 가시화하는 방향성을 지녔다는 사실이다.

'겪었어, 겪었어 이런 일'이라고 고개를 끄덕일 때마다 눈물이 났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았다면'하고 생각하는 아이가, 한 명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남자아이도 그렇다. 다음 세대에는 이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82년생 김지영과 나의 꿈

- 口行田 トモコ (@yukita_ToMo) March 10, 2019

또한 여기에서 '김지영'의 출판사인 치쿠마쇼보가 위의 고노스와 사이토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사토 유미코'라는 이름의 가능성을 모색한 것을 참조하면, 소위 '김지영'은 '메이저리티(일본인)-보통-여자'라는? 교환가능한 기호로서 인식되었음은 분명해진다. 가장 메이저리티다운 메이저리티의 '여자'인 셈이다.

사이토는 자신이 찾아내거나 트위터 해시태그 등으로 유도된 코멘트를 분석하면서 이 소설의 수용에는 세대의 분단선이 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 분단선의 계기는 바로 1985년 시행된 남녀 고용기회균등법¹⁷⁾이다.

16) 「She is」라는 여성참여형 인터넷 '라이프&컬처 커뮤니티'에 실린 글「82년생 김지영을 번역한 사이토 마리코 씨가 독자의 목소리를 고찰, 한국에서 100만, 일본에서 13만 돌파의 여성의 벽을 엮은 책(『82年生れ、キム・ジョン』を訳した齊藤真理子が読者の声を考察 韓国で100万、日本で13万突破の女性の壁を綴った本)」(2019년 3·4월 특집 : 꿈의 시간)

17) 노동부인복지법(1972)으로 대표되고, 1985년 5월 성립, 1986년 4월 1일 시행. 여자차별철폐조약 비준(1985)가 직접적 계기가 되어 제정되었다. 모집, 채용, 배치, 승진에 관한 남녀의 기회균등 노력을 기업에게 의무화하고, 또한 교육훈련이나 복지후생, 정년, 퇴직, 해고에 관한 차별을 금지했다. 하지만 전자에 관한 벌칙 규정이 빠진 것, 임금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것 등에서 여러 비판을 받았다. 이에 이어 1997년 6월 개정(1999년 4월 1일 시행). 종래 노력 목표를 명확한 금지규정으로

이 책을 번역한 저는 1960년생으로 남녀 고용기회균등법 시행 이전에 사회에 나온 세대입니다. 제 세대 여성들은 '김지영'을 읽는다고 울지는 않을 것입니다. 남성사회의 본심에 노출되어 살아온 탓에 일종의 강함과 둔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균등법 시행 이후 세상에서 자라온 여성들은 여전히 이 세계에 존재하는 원리와 그것을 은폐하는 장치 사이의 갭에 노출되었고, 그것을 보지 않도록, 보지 않기 위해 애쓰면서 그저 속으로 쌓아두는 일이 많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과 싸우기란 너무 어려웠고, 게다가 그것이 '보이지 않는 벽' 정도가 아니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하다고 밝혀진 게 바로 도쿄 의과대학을 비롯한 대학 의학부의 부정입시 사건이었습니다.¹⁸⁾

남녀고용 균등법 전에 사회에 나온 1960년생 사이토의 세대는 '일본사회=남성사회'라는 등식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이토를 비롯한 그녀 세대는 이 소설을 '내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확실히 흥미로운 지적이다. '김지영' 현상을 누구보다 몸으로 체험했고 지금은 한국문학의 대명사가 된 사이토 마리코, 이 소설을 수입한 치쿠마쇼보의 광고 전략, 그리고 『문예』의 미디어 이벤트, 또 거기에 상응하는 SNS 중심 독자의 반응과 코멘트, 나아가 그것을 부감하는 일본어 미디어 분석 등을 겹쳐보면, 이러한 해석이 잘못되었다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페미니즘-일본'이라는 구도가 가시화한 토대는 좀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한국소설=페미니즘'이라는 스테레오타입은 꽤 양의적이기 때문이다. 사이토가 말하는 남녀고용균등법 이후의 세대는 신자유주의 세대와 거의 겹쳐 있다. '김지영'을 비롯해 최근 한국어에서 이동한 현대문학을 '내 이야기'로 다시 '번역'하고 있는 이들은 이전 세대가 쓴 일본문학을 '내 이야기'로 '번역'하지 않는다.¹⁹⁾ 그렇다면 '김지영'이 곧 '나'라고 말하는 일본어 독자란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 것일까.

얼굴이 비어있는 '김지영'의 일본어 표지를 보았을 때, 단번에 떠오른 것은, 호시노 도모유키(星野智幸)가 2010년 발표한 소설 『오레오레(俺俺)』(한국 번역은 『오레오레』, 은행나무, 2012)였다. 호시노 도모유키의 『오레오레』는, 2010년 당시 일본에서도 신자유주의 시대의 승자라고 지목되던 '맥도날드'에서 시작한다. 이야기는 꽤 복잡한 구도이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나'(개인적인 1인칭 대명사)가 굵은 글씨 '나'화(1인칭의 집합적 대명사화)하고, 그 '나'가 증식한다는 이야기이다. 일본어에서의 '오레'는 남성 젠더화된 1인칭 대명사이고, 다소 거친 표현이므로 공식적 장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 소설에서 '나'(일인칭 단수형)는 어느 날 갑자기 '나'(1인칭 복수형)가 된다. 아니, 달리 말해 '나'가 그 녀석을 보고 '나'라고 판단한다. 그때 얼굴 생김새는 판단기준이 아니다. 단지 '나'화한 '나'는 '나'로 보일 뿐이다. 게다가 '나'라고 적힌 모든 글자(굵은 글씨도 포함)

하는 것이나 성희롱 방지를 위한 배려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한편, 노동기준법상 여자보호 규정이 철폐되었다. 2007년 개정은 남녀 양쪽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금지의 대상을 추가, 명확히 했다.

18) 「She is」라는 여성참여형 인터넷 '라이프&컬처 커뮤니티'에 실린 글「82년생 김지영을 번역한 사이토 마리코 씨가 독자의 목소리를 고찰, 한국에서 100만, 일본에서 13만 돌파의 여성의 벽을 엮은 책(『82年生れ、キム・ジョン』を訳した齊藤真理子が読者の声を考察 韓国で100万、日本で13万突破の女性の壁を綴った本)」(2019년 3·4월 특집 : 꿈의 시간)

19) 예를 들면 치쿠마 쇼보 홈페이지에 공개된 '100개의 꿈'은 '1953년생에서 2001년생까지'의 목소리가 모였다. 출생연도별로, 성별 버튼도 준비되어 있다. 특히 50년대 출생과 일부 60년대 출생의 경우 '나'가 아니라 '내 딸'이라는 주어를 사용한다. 또 60년대생의 경우 차별을 내면화하던 자신을 상대화하면서 '차별'에 그다지 의문을 품지 않았던 젊은 시절의 자신을 상기하고 있다. (열람일: 2022년 9월 18일. <http://www.chikumashobo.co.jp/special/kimjiyong/>)

에는 젠더·세대·직업·가족·국적 등, 아이덴티티와 관련된 차이화의 논리가 기능하지 않는다. 소설에서 증식하는 ‘나들(俺ら)’은 자기 ‘아버지’에 대한 기억조차 희미해지는 것을 깨닫고 당황한다. 결국 ‘나’는 자신의 아이덴티티 편성과 관련된 모든 기억을 망각하겠다는 선택을 한다. 그런 곤경에 처해있음에도 ‘나’는 맥도날드의 표시인 ‘빨강색과 노란색’을 발견하고 ‘조난 상황에서 유인도를 찾은 기분’이 된다. “일단은 살았다. 맥도날드는 진짜 내 집 같다. 어디든 똑같은 인테리어로 나를 맞아주고 안심시킨다”고 생각하며 맥도날드에 들어간다. 하지만 거기서 ‘나’는 ‘나’의 칼에 찔리고, 그 후 ‘나’끼리의 데스크게임이 격렬하게 이어진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나’의 증식이 ‘맥도날드’라는 글자의 증식과 연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의 일터는 가전용품 판매점 ‘메가돈’이고 아르바이트하는 곳은 ‘요시노야(吉野家)’이다. 또 아침과 낮에는 ‘맥도날드’에서, 저녁식사는 ‘편의점’에서 먹을 것을 구한다. ‘나’의 일상은, 전세계 혹은 일본 어느 마을에나 존재하는 체인점의 기호에 의해 구성된다. 즉 ‘나’들의 공통점은 맥도날드화(McDonaldization), 이른바 균질화, 미국화된 글로벌 문화가 온몸에 새겨져 있다는 것이고 그 외의 것이나 기억은 사라져버렸다. ‘김지영’이란 이런 보편적인 ‘나’의 위치에 있는 것인지 모른다.

‘나’를 둘러싼 개체로서의 경계의 착종은 기억의 착종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맥도날드가 상징하듯, 글로벌 기업이 전세계 각지에서 마을 풍경을 바꾸고 원래의 풍경에 대한 기억(역사)조차 지우는 일과 연동한다. 지역 내셔널리즘과 밀당을 하면서도 글로벌 자본의 대형 체인점에 의해 모든 공간이 균질화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의 ‘김지영’ 이야기가 일본에서의 ‘나=김지영’의 이야기가 되는 것. 일본어에서의 ‘김지영’의 증식을 경험의 균질화와 개별적인 역사의 망각 논리로부터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닐까.

‘나’의 증식은 ‘나’와 ‘나’가 서로 ‘삭제’하는 전쟁을 겪으며 끝난다. 이야기는 ‘나’끼리 공멸을 멈추지 않는 처절한 전장으로 변한다. ‘나들’을 억압하는 ‘적’이 보이지 않게 되고 ‘그들(적을 의미함)’이 ‘나들’과는 다른 차원을 사는 이상, ‘나’가 ‘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나’를 완전히 삭제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도를 참조하면 메이저리티 안에서도 비교적 중간계층에 속하는 ‘김지영’끼리(한일, 혹은 일본의 내부, 혹은 다른 조합도 포함하여)의 (상징적인) 서로죽임, 공멸에 대한 위험이 ‘김지영’화에 내재할 가능성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3. 편안한(?) 페미니즘

일부러 거론할 필요도 없을 만큼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사실. 어떤 문화 공간에서 문화상품이 부상하는 데에는 그 사회 메이저리티의 지지가 필요하다. 마이너리티의 아픔이나 상처를 다루는 콘텐츠가 메이저리티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그것을 다룰 때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마이너리티에게 상처주는 메이저리티의 자리에 자신을 위치시키고 그것이 (억압하는 측에 있는) ‘내 이야기’라고 말하고 싶은 (메이저리티인)‘나’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스스로 마이너리티 편이라는 자기인식이 강한 ‘양심적’ 메이저리티에 내재하는 ‘위로부터의 시선’은 꽤 골치아픈 것이다.

대만 출신으로 세 살 때 일본에 건너온 소설가 온유주(溫又柔)의 「‘선의’가 물어뜯는 마음」(『신문 아카하타(しんぶん赤旗)』, 2022년 9월 18일)을 함께 읽어 보자. 덧붙이자면 그녀의 제1언어는 일본어이고, 일본의 도립고교 출신이라는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녀는 소위 중간층 일본의 메이저리티와 동일한 교육 시스템에서 교육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경우 특히 출신 유치원과 초등학교 이름에서 그 사람의 출신 계층을 엿볼 수

있다.

이 나라는 일본인뿐이라서 저는 단지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마이너리티로 여겨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중략) 작가가 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제 책을 읽었다는 사람이 “일본이 이런 나라여서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한 적이 있는데 심정이 아주 복잡했습니다. 부디 용서해달라는 애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당신을 괴롭게 해서 저야말로 죄송해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에게 “용서받은” 상대는 위안을 얻은 것 같았지만, 저는 계속 뭔가에 물어뜯긴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이너리티 편이라고 스스로를 자부하는 메이저리티일수록, 실은 자신의 ‘선의’에 숨어 있는 무의식적 차별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온유주는 “물론 저에게도 그게 남의 일은 아닙니다. 저 역시 늘 마이너리티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방심하면 저도 언제 누구를 무심코 짓밟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자신의 ‘선량함’을 굳게 믿는 것은 위험하다”는 그녀의 생각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차별 구도에 교차적(intersectional) 사고가 요구됨을 보여준다.

여기에 선주민 페미니즘을 문화인류학 쪽에서 연구하는 이시하라 마이(石原真衣)의 말을 연결시켜 보자. 이시하라는 스스로를 ‘아이누, 와토(会津/琴似屯田兵), 플러스 알파 말레이셜(アイヌと和人(会津/琴似屯田兵)プラスアルファのマルレイシャル)’ 출신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아이누 출신이면서 침묵하는 사람, 특히 ‘선량한’ 메이저리티의 기대에 협력적인 ‘모델 마이너리티’가 될 수 없는 당사자 문제에 관해 연구한다.²⁰⁾ 이시하라는 영국에 있는 광고회사의 글로벌 인사 디렉터인 아미나 포탈린의 ‘많이 혼동되는 BLM과 다이버시티&인클루전’이라는 기사를 인용하면서²¹⁾ 다른 문화 사람들과 그 다양성을 이해하자는 의미의 다이버시티가 반드시 인종차별 해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했다.

아이누를 포함한 일본의 ‘인종적 타자’에게 가장 심각한 것은 살해 등의 물리적 폭력과 인터넷 혐오를 포함한 배외주의적 공격이다. 포탈린의 지적은 다이버시티 추진만으로 인종차별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지적이며, 이 두 가지 혼동을 피하는 것은 다이버시티 추진이나 SDGs 시대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²²⁾

잘 알려져 있듯 BLM은 퀴어 여성을 포함한 흑인 여성 활동가 3명(엘리시아 가자, 패트리스 켈러스, 오팔 토메티)이 2013년에 시작한 운동이다. BLM에서는 교차성의 관점이 명확하게 지향되고 있고, 이것은 2010년대부터의 제4물결 페미니즘에서 활발히 사용된다. ‘교차성’은 성차, 인종, 민족, 계급 등과 관련된 복수의 차별이 얽혀 발생하는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개념이다. 본래 인종차별과 성차별이 서로 깊이 연결되어 기능하는 사회에서, 어느 한

20) 石原真衣, 『〈沈黙〉の自伝的民族誌(オートエスノグラフィー) サイレント・アイヌの痛みと救済の物語』, 北海道大学出版会, 2020 등.

21) “다이버시티&인클루전(포섭)은 이미 ‘기업에 있어서’ 불가피하다. (...) 한편 BLM은 제도적인 인종차별이나 불평등이다. 이것은 구체적으로는 다른 인종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기회가 흑인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다이버시티&인클루전과 BLM의 차이를 이해하려면 플로이드 씨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좋다. 그가 죽은 것은 인종차별 때문이었고, 주위에 다이버시티가 부족해서였던 것은 아니다.” (이시하라가 사용하는 기사는 『campaign』2020년 7월 2일 공개된 것)

22) 石原真衣, 「先住民という記号」, 石原真衣編, 『記号化される先住民/女性/子ども』, 青土社, 2022.

쪽을 방치하고 다른 쪽만 반대할 수는 없다는 블랙 페미니스트들의 사고에서 큰 영향을 받아 논의가 축적되었다. 이시하라도 다이버시티와 같이 메이저리티 주도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주장만으로는 ‘인종적 타자’에 대한 차별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일본어 공간에서 “자신의 ‘선량함’을 굳게 믿는 것은 위험하다”는 운유주의 말과 이시하라의 다이버시티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K문학’의 일본어화, 메이저리티 여성의 ‘김지영’화가 지워버리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여기에 ‘한국·페미니즘·일본’이라는, ‘한국’과 ‘일본’이라는 내셔널한 영토성을 담보 삼아, 그 사이에 ‘페미니즘’을 개입시키는 구도가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K문학에 관심이 급증하던 시기는, 일본어 공간에서 인종주의·배외주의·리버럴의 보수화·페미니즘 보수화·젊은층의 보수화 같은 말이 넘쳐 흘렀고 그것을 우려하는 논의가 이어지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과 관련하여 참고가 되는 사건이 ‘김지영’ 현상 2년 전인 2017년에 일어났다. 이 시기, 인터넷을 들끓게 한 주인공은 우에노 지즈코(上野千鶴子)이다. 문제의 발단은 다음의 인터뷰 기사였다.(『中日新聞』『東京新聞』, 2017년 2월 11일)

일본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민을 받아 활력있는 사회를 만들면서 한편으로는 사회적 불공정과 억압과 치안 악화로 고통받는 나라를 만들지, 혹은 난민을 포함한 외국인에게 문호를 달고 이대로 천천히 쇠퇴할지.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민 정책에 관해서라면 객관적으로는 무리인 것 같고, 주관적으로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일본은 노동개국으로 방향전환 하는 동안 세계적 배외주의 물결에 부딪혔습니다. 대량 이민을 수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관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민은 일본에 있어서 너무 리스크가 큼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최고’라고 말했지만, 일본은 ‘오직 일본’의 나라입니다. 단일민족 신화를 믿습니다. 일본인은 다문화 공생을 견딜 수 없을 겁니다.

위 발언에 대해 이주련(移住連) 빈곤 대책 프로젝트가 공개 질문장을 던졌다. 그에 대해 우에노는 “젠더, 섹슈얼리티 그리고 이민 문제를 같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전자는 선택할 수 없지만 후자는 정치적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난민 문제는 별개입니다)”이라고 하거나, 이주자에 대한 배외주의적 움직임이 커질 가능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의 우려가 있으므로 하지 않게 게 낫다고 분명히 반박하며 더욱 논란이 커졌다. 우에노의 발언에 대해, 사회학자 기타다 아키히로(北田暁大)는 신자유주의자 우에노 지즈코의 ‘이민비판론’²³⁾이라고 했다. 또한 사회학자이자 배외주의, 이민정책에 정통한 히구치 나오토(樋口直人)는 ‘내셔널 페미니즘(적)’²⁴⁾이라고 했다. 한편, 젠더 연구자 무타 가즈에(牟田和恵)처럼(‘보통 사람의 배외주의’에 목소리를 달게 하려면’, 2017년 2월 27일 공개, @WAN) 우에노를 옹호하는 논의도 있었다. 하지만 많은 이민, 사회학, 페미니즘 운동가와 연구자가 민감하게 반응했고 비판적인 입장 표명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우에노도 응수는 하지만 결국 우에노는 자신의 제자인 기타다의 비판을 받아들이는 식으로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논쟁은 진정되었다.

히구치 나오토가 지적한 대로 “페미니즘과 레이션리즘에 대해 논의를 피해 온 결과”라는 위기감에서, 오카노 야요(岡野八代)와 시미즈 아키코(清水晶子)를 비롯한 많은 페미니스트 연

23) 北田暁大, 『終わらない「失われた20年」 嗤う日本の「ナショナリズム」・その後』, 筑摩選書, 2018.

24) 樋口直人, 「研究者による運動のあり方を、フェミニズムに学ぶ」, 2017년 3월 15일 공개. @WAN

구자가 이 논쟁에 참여했다. 특히 페미니즘/퀴어 이론 연구자인 시미즈는, 앞서 우에노가 이민은 ‘정치적인 선택’이고 젠더나 섹슈얼리티는 ‘선택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여성의 노동조건이 압도적으로 열악한 사회에서 여성이 결혼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찾지 않고 홀로 사는 것”도 “성별이 두 개만 허용되는 사회에서 주어진 젠더를 받아들이거나/거부하는” 것도, 혹은 “이성애주의가 견고한 사회에서 커밍아웃하거나/클로짓으로 사는” 것도 모두 같은 의미에서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선택입니다. 이미 정치적으로 강하게 규정된 조건들 속에서 이루어진 이런 결정에 대해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선택을 제한할 권리는 대체 누구에게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그런 선택의 결과 생긴 상황에 불만이 있으면 애초에 그런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지”라는 자기책임론과 아주 가까워지는 것 아닐까요.

여기에서의 문제제기는 과연 우에노만을 향해야 할까. 이 논의를 메이저리티 여성의 ‘김지영’화에 적용한다면, ‘남자’와 ‘여자’ 두 성을 축으로 이성애와 결혼이라는 제도의 억압이 자연화된 세계에 의해 만들어진 불평등, 그로 인한 상처나 고통의 공동체가 ‘일본’과 ‘한국’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배제의 역학이 내포되어 있고 메이저리티 여자들에 의한 ‘내셔널 페미니즘’이 나올 위험이 숨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조경희는 ‘김지영’화에 대해서 일본사회 내부에 ‘재일’ ‘여성’이 ‘존재’를 가시화시키며 “타자의 목소리를, 신체성을 외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부터 내부에 타자성이 정말로 부재했는가?라는 의문은 계속 남는다”고 지적한다.²⁵⁾ 아베 신조의 부인 아베 아키에(安倍昭恵)처럼 역사적·정치적 문제에는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K’ 콘텐츠를 좋아하는 사람은 무수히 있다. ‘보수’, ‘배외주의’, ‘레이시즘’을 지지하는 ‘보통’의 메이저리티 문제가 논의 선상(PPT)에 올랐던 시기, 그 ‘보통’의 메이저리티 사이에서 ‘김지영’화는 일어난다. ‘내 이야기다’라는 말이 ‘한국’과 ‘페미니즘’이라는 기호로 설명되는 현상에 대해, 28년 이상을 일본어 사회에서 살아온 나는 당혹감을 지울 수 없었다.

4. 「난장이가 쏘아올린 공」에서 「시간여행」으로

‘김지영’은 2018년 12월에 간행되었다. 2019년은 ‘김지영’의 해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또한 2019년은 K문학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이었던 해이기도 하다. 같은 시기(2019년 4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1951년 정령 제319호, 2019년 법률 63호에 의해 개정) 시행을 계기로 미디어 등에서는 ‘이민’이라는 말이 부상했다. 이 현상은 일본 국내에 ‘이민’이라는 말에 값하는 존재가 없는 듯한 상황을 생각하면 놀라운 사건이었다. 그때까지 인력 부족이 지적되어 온 의료, 복지, 건설 등의 현장을 담당해 온 것은 ‘기능실습생’ ‘유학생’이었다. 두 재류자격(VISA)은 ‘취업’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자격 외 활동’으로 취급되어 사회적인 보상도 거의 없었고, 노동환경은 열악했다. 이 개정안은 재류자격 ‘특정기능’을 2단계로 신설하고 ‘특정2호’의 경우 영주권 취득 요건 중 하나인 ‘5년의 취업기간’(이것이 모든 직업에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에 들어간다고 했다. 유학생 약 35만 명 수용을 기준으로 하는 이 제도는 2012년 5월 7일부터 시작된 ‘고급인재 포인트제에 의한 우대제도 도입’과 구도적으로 대쌍을 이룬다. 두 제도 사이에는 일본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 등 모든 곳에

25) 조경희, 「동시대적 정동과 번역 불가능한 신체성-일본에 파급된 ‘K’과 문학과 페미니즘」, 『문학과 사회』33(2), 문학과지성사, 2020년 여름.

서 작동하는 위계구도가 내포되어 있다. 게다가 이러한 ‘이민’ 언설은 식민지 지배의 ‘산 중 인’인 재일조선인과 대만인을 보이지 않게 하면서 구조화되고 있다.

하지만 입관법 개정으로 약 35만 명의 노동자를 받아들일 계획이 시작하자마자 「외국인의 국보 이용, 조사 강화에 부정 사례는 미확인이라도…」(「아사히신문」, 2018년 12월 15일) 같은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떻게 단속할지에 관한 법안이 서둘러 가결되었다. ‘고급인재’ 때와는 달리 ‘노동자’의 이동에 대해서는 예비 범죄자 낙인을 찍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낯선 환경에 들어올 사람들에게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어떤 환경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는 별로 없다.

이처럼 일본어 공간의 ‘미래’를 질문하고, 새로운 변화가 생긴 2019년 또 하나의 목소리가 ‘나도 시대의 일부입니다’라는 목소리를 냈다.(康潤伊·鈴木宏子·丹野清人編, 『わたしもじだいのいちぶですー川崎桜本・ハルモニたちがつづった生活史』, 日本評論社, 2019) 이 목소리의 발신 장소는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神奈川県川崎市)에 있는 사쿠라모토(桜本) 거리이다. 이곳은 1920년 전후부터 식민지 지배로 인한 이동으로 ‘코리아 집주지역’이 형성된 곳이다. 이곳에서는 1970년대 들어서부터 민족차별을 없애는 지역 활동이 본격화했고 이는 1988년 교류관 개설로 이어졌다. 이곳의 주요 활동의 하나가 문해교실(識字學級)이었다. 이 책에는 이곳 문해활동에 참여한 고령 여성들의 그림과 글 등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식민지 조선의 빈곤 계급으로 태어난 그녀들은 일본으로 이동하고도 일상에 쫓기며 살았고, 조선어든 일본어든 글자를 배울 기회를 얻지 못했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단지 ‘아래’로부터의 소리를 평가해 ‘주자’는 ‘선의’로 가득 찬 ‘위’로부터의 ‘시선’은 새로운 논의를 만들 어내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배제된 존재들의 글쓰기에 대한 과잉평가와 상품화가 늘 차별을 품고 있었다는 것은 일본문학사가 증명했다. 강윤이(康潤伊)는 이 책 해설에서 가토야 히데노리의 말을 빌려 ‘비문해자 차별(비문해자의 생존권·사회권은 읽고 쓰는 능력이 당연시되는 사회에서 다양하게 침해받는다는 것)’이 내재된 사회에서, 비문해자에게 문해력을 강요하는 것은 문해자 우위 사회에 종속시키는 의미라는 중요한 지적을 한다. 민족·젠더·계급의 위계 구도의 하부에 속한 그녀들의 일본어는, 학교 교육의 엄격한 규범하에서 강제/교정되어 가는 ‘올바른-일본어’와 다르고, 조선어의 개입을 강하게 받으며 귀로 익힌 것이고, 오랜 시간에 걸쳐 신체에 깊이 각인된 것이다. 즉, 그녀들 스스로가 번역자가 되고, 새로운 일본어 표현을 만들어온 것이다.

목차는 1부 ‘기억’, 2부 ‘어떻게 살아왔나’, 3부 ‘지금 생각하는 것’, 4부 ‘교실 밖으로’라는 흐름으로 되어 있다. 태어나 자란 한반도에서의 추억, 일본으로의 이동, 일본에서의 생활, 사쿠라모토에서 나이들과 마주하는 일, 2015년 9월에 전쟁 반대 데모를 기획하고 ‘처음으로 거리에서 구호를 외친’ 일, 그로 인해 헤이트스피치의 표적이 된 일, 2016년 헤이트스피치 해소법 제정을 지켜보기 위해 국회에 간 일 등이 시간순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녀들과 일본어 학습을 함께 한 ‘공동학습자’나 편자들이 오랫동안 이어온 대화 묶음을 역사적 시간을 참조하여 정리함으로써, 역사의 노이즈로 들리지 않고 방치되었을 소리가 ‘나도’라는 주체의 지점에서 울림을 주고 있는 것이다.

『나도 시대의 일부입니다-가와모토 사쿠라모토 할머니들이 잇는 생활사』는, 서유순(徐類順)의 글 「나도 시대의 일부입니다」의 제목을 표제로 삼은 것이다. 잠시 전문을 인용한다. 학술논문의 경우 맞춤법, 어법이 모두 어긋나있어 내용을 수정하거나 ‘원문대로임’라고 표기해야 하지만 하지 않겠다. 그대로 읽어주시면 좋겠다.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분들이 이런 할머니에게까지 와서 이야기를 들어주시니, 고달픔을 잊을 정도로 고맙습니다. 제 경험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학생분들이 잘 이해하고 깊이 생각해주신 것 같습니다. / 고야마(小山) 씨 아버지는 전쟁 후 소학교 때부터 일을 했고 고등학교에 못갔다고 합니다. 역시 시대가 안 좋았습니다. 저도 시대의 일부입니다. 일본어를 할 수 없는 것이나 차별로 고통받는 것도 고야마 씨는 이해해주었습니다. / 옛날에 좋은 일을 할 수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그때 일본말을 못했고 쓸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부모님하고 일본에 와서 익숙해지니 여기가 좋았습니다. 저는 고향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지금은 아주 변해버렸고 외국같아서 못합니다. / 앞으로는 아이도 손자도 이 쪽에서 살 겁니다. / 일본은 고향 같습니다.

그녀들의 작품집 제목 ‘나도 시대의 일부입니다’는 그녀들의 작품을 보러 온 일본인 대학생이 그녀들의 어린 시절, 즉 조선인 여성의 식민지 지배 시대의 경험을 읽고, 그것을 자기 할아버지의 공습 체험과 연결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물론 일본인 남성의 전쟁 체험과 조선인 여성의 식민지 지배나 전쟁 체험을 같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번역에 의한 타자와의 마주침은 언어의 경계 밖의 타자(예를 들면 ‘한국’)와의 만남뿐 아니라 번역 과정에서 ‘번역’이라는 타자와 만나는 측면도 함께 지닌다. 자이니치 여성들의 일본어(작문)는 타자의 언어(일본어)의 오역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을 ‘읽는’ 과정에서 일본의 메이저리티는 내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외부인 양 깨닫지 못했거나, 혹은 문화의 무의식 속에 밀봉해둔, 스스로가 만들어낸 ‘타자’를 만난다. 한국어 ‘김지영’이 만들어낸 일본어 ‘김지영’들에게 ‘나도 시대의 일부입니다’라는 목소리가 닿는 날은 올까. 고령의 자이니치 여성들은 지금까지 일본어에서 번역불가능한 타자로 대상화되어 그 존재조차 감지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나는 마치 이런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무시하면서 ‘일본’과 ‘한국’을 ‘페미니즘’으로 연결하는 것을 쉽게 반길 수 없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한 사이토 마리코의 조세희 「시간여행」(1983년 간행)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보겠다.²⁶⁾

꽤 난해한 작품이고 잘 읽히지 않았다. 아마 군사독재 정권 시대에 검열의 눈을 피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쓰거나 과감하게 비약한 부분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올해 이를 다시 읽었을 때 곧바로 ‘2019년’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다.

사이토는 「시간여행」의 결말에 있는 다음 장면의 ‘2019년’에 주목한 것이다.

이 앞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쓸 능력이 내게는 없다. 1999년이거나 2009년. 늦어도 2019년까지는 여기에 생략된 부분을 채울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는 사이, 또 한 세대가 흘러갈 것이다. (작가)
몇 장 생략 (작가)

사이토는 “‘늦어도 2019년까지는’이라고 썼을 때 작가에게 그해는 얼마나 먼 미래에 있었을까”라고 말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가능하면 2019년 안”에 「시간여행」을 꼭 번역하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1979년에는 미래였던 올해 2019년 여름과 가을, 한일 외교관계는 긴장 속에 있고, 여전히 헤이트 스피치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전람회(인용자주 : 표현의 자유전)의 일부가 중단되었다 (중략) 우리는

26) 『한국·페미니즘·일본(韓國·フェミニズム·日本)』의 권두언 ‘미래로부터 보인다’(앞의 책.)

한국 사람들과 협력하여 한 권의 잡지와 한 권의 책을 만들었다. 이러한 모든 일은 기억되고 되돌아볼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 지금부터 10년 후, 20년 후의 눈이 지금 이때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언제나 미래를 통해 본다.

사이토는 조세희의 「난쏘공」을 「김지영」에 접합시키려는 운동을 포기하지 않는다. 또한 그녀는 '김지영'에서 시작된 'K' 문학의 이야기를 언젠가 다시 써야 하거나 혹은 영원히 미완성으로 끝날지도 모를 「시간여행」을 매개로 미래를 향해 열고자 한다. 이것은 분명히 현재 'K'문학을 수용하는 사람들의 감각과 어긋나는 위치이며, 현상에 대한 비판적인 개입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면 안될까.

‘지금’부터 ‘10년 후, 20년 후의 시선!’

그것이 “‘나들’(오레오레)’·‘김지영들’의 ‘시선’을 통해서, 라는 절망이 되지 않도록 지금·여기에서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 (번역: 김미정)